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8호(교육지)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5월 2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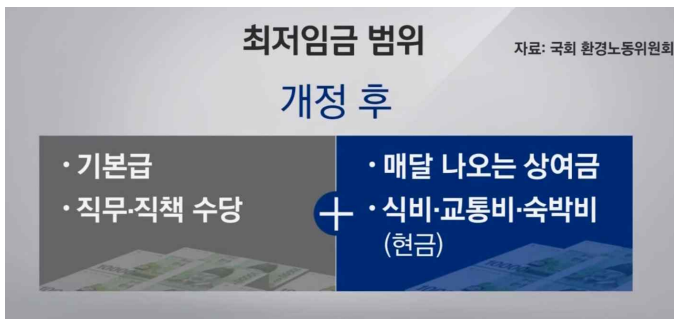
국회가 최저임금을 팍팍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개악 코 앞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 25일(금) 새벽 2시 야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28일(월)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하면 2019년부터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노동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악이 당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겠지만, 점차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악의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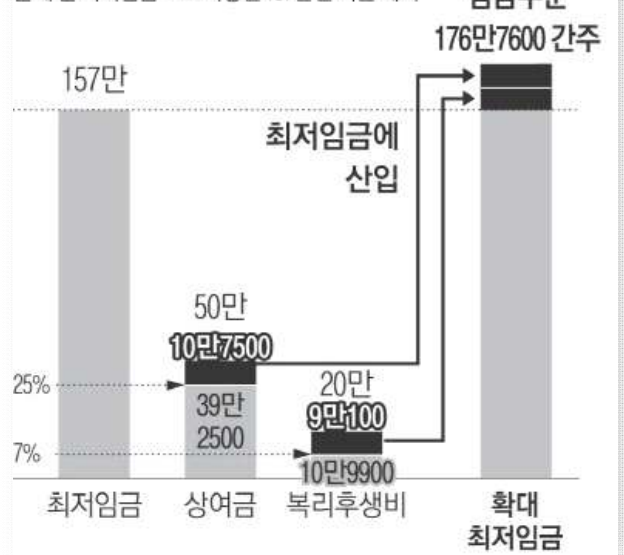
자료 : JTBC

현재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직무, 직책수당]만 포함하던 것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일부]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가 사라진다. 현재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157만원, 상여금 월 50만원,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등) 월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157만원이지만 개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176만 7,6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결국 내년에 임금을 동결해도 이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래 표 참조)

여기에 덧붙여,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악했다.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피해갈 꼼수를 자본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이다.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 기준 예시



자료 : 경향신문

전체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실질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하락할 것이다. 지금도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크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이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을 높게 받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시켜서 결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임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선포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아직 막을 수 있다! 28일 총파업으로!

최저임금법이 최종적으로 개악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려고 한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28일 총파업으로 집결해 최저임금법 개악 막아내고 우리 임금을 지켜내자!